

시끌벅적 e-스타



취업 양극화 비애 '엄친아' '아친남'

어렸을 적 최악의 비교 대상인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는 커서도 달라진 게 없다. 시험을 보면 전교 1~2등 하는 그, 운동도 잘하면서 얼굴도 잘생긴 그,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다는 그 '엄친아'는 이제 일류 대학을 나와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초봉 3천만원이 훌쩍 넘는 대기업, 복리 후생도 좋은 외국계 회사 등에 '쉽게' 붙었다. 얼굴 한 번 본 적없는 '엄친아'의 비교 대상인 자신은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을 넘어 '삼태백'(30대 태반이 백수) 신세다. 이 같은 취업대란 시대의 양극화된 모습을 꼬집는 동영상이 인기다. 인터넷포털 '다음' 동영상 코너에 올라온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이름의 동영상은 지난 24일 올라온 뒤 2만명의 네티즌이 클릭 세례를 퍼부으며 화제가 됐다. 동영상에는 신의 직장을 비롯, 취업대란과 청년 불안정에 따라 새롭게 축복받은 직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학교·대사관 및 외국계 회사 등을 소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못 하는 게 없는 엄마 친구 아들·딸들에 대한 성토를 하면서, 악명높은 '엄친아'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엄친아'만 있는 게 아니다. '아친남(아내 친구 남편)'이 더 무섭다'는 의견도 많다. "내 친구 남편은..."으로 시작해 "월급 많이 가져오며 승승장구하지, 퇴근해서 집안일도 도와주지, 아이랑 놀아주지, 기념일에는 별별 이벤트에 선물주지"로 이어지는 칭찬은 한국 남성을 고달프게 한다는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

니의승의 음악산책

'신의 불방울'이라는 만화는 읽는 사람들을 와인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최고의 안내 서적이 되었고, '초밥왕'이라는 만화 역시 초밥에 해당하는 일본말 '스시'의 폭넓은 대중화에 큰 힘을 발휘했는데, 모두 애니메이션 선진국다운 일본의 문화 콘텐츠 제작에 속한다. 어떤 언어로 무엇을 전달 하든지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 보다는 그림을 보면서 동시에 읽게 해 주는 것에 기억력을 더욱 배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증명된 지 오래 된 일이다. 더불어서 거기에 유



적이지 않은 순수한 아마추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만화는 이미 세계적인데, 만화적 완성도를 생각해 봤을 때 '표현하는데 크게 부족하지 않으면 된다'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그 이상인 것 같다. 저자 본인은 H대 시각 디자인과를 다녔지만 열심히 다니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한때나마 그림을 전공했던 사람의 수줍은 마음과 더불어서, 저자의 음악과 재즈에 대한 열정이 만화를 제작하게 한 에너지의 원천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만화로 보는 재즈 역사 100년 '재즈 잇업'

머와 위트가 섞인다면 지루함을 줄여줄 수 있고 즐기는 단계로 까지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있는 탁월한 것이 '만화'일 것이다. 그런 만화의 뛰어난 가능성을 일찍 발견하고 발전 시켜온 나라 일본, 그런 일본에 수출된 한국의 만화가 있다. 타이틀은 '재즈 잇업'(Jazz it up), 재즈 전문 월간지 '몽크 몽크'를 창간하여 발행인 겸 편집인이었던 남부성씨(68년 9월생)의 작품이다. 원래는 미국의 잡지였지만 일본에서 사들인 세계적인 재즈 전문지 '스윙 저널(Swing journal)'이라는 잡지가 있다. 2차대전 후에 시작된 스윙 저널은 현재 60주년이 넘었고 그런 역사를 가진 만큼 그 권위를 인정받는데 그런 잡지에 지금 3년째 연재되고 있으며, 2008년 1월이면 원고가 마감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일본의 최고 출판사 중 하나인 '호산샤'에서 단행본이 출판될 예정이다. 저자 남부성씨는 만화를 전문적으로 그려본 적이 없는 순수한 아마추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만화는 이미 세계적인데, 만화적 완성도를 생각해 봤을 때 '표현하는데 크게 부족하지 않으면 된다'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그 이상인 것 같다. 저자 본인은 H대 시각 디자인과를 다녔지만 열심히 다니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한때나마 그림을 전공했던 사람의 수줍은 마음과 더불어서, 저자의 음악과 재즈에 대한 열정이 만화를 제작하게 한 에너지의 원천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음악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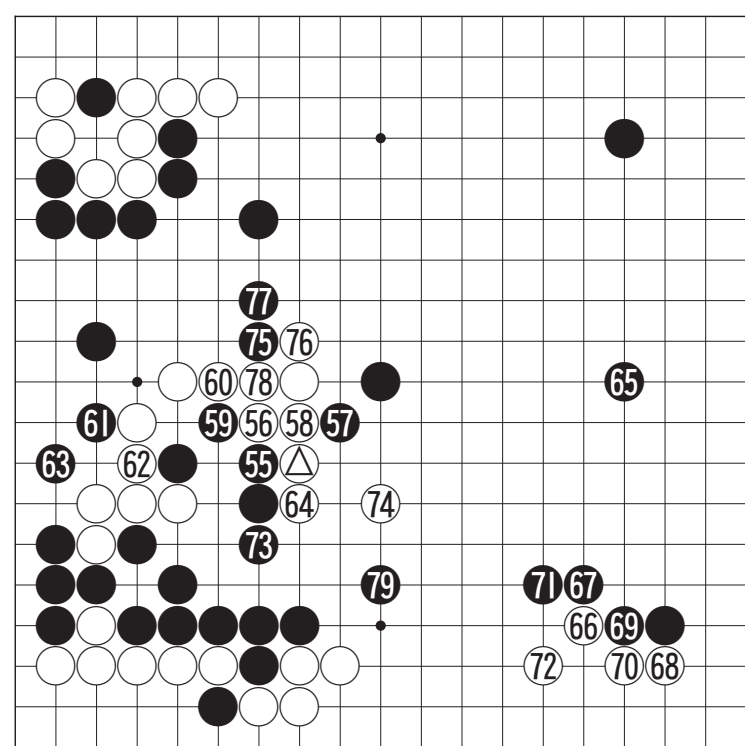
뉴스퀴즈

95. 미 시사주간 타임은 최근 '올해의 인물'로 러시아 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혼란에 빠져 있던 러시아에 안정을 가져온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해 선정했다는 것이 리처드 스텔렌 타임 편집장의 평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 블라디미르 푸틴 ② 알 고어 ③ 힐러리 클린턴 ④ 바락 오바마

참여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7일(음 11월 18일 乙未)

- 36년생 간절히 소망은 꼭 이루어진다. 48년생 거진 불도 다시보자 화재를 주의 하라. 60년생 상대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주어라. 72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니 심성을 안정하라. 84년생 갑자기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31, 35
37년생 좋은 친구가 찾아와 즐거우려라. 49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시비로 비화될 수도 있다. 61년생 오늘은 문단속을 잘해야 한다. 73년생 붉은 고깔 쓰고 마음은 우울하니 안정을 취하라. 85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만사형통하라. 행운의 숫자: 34, 44
38년생 상대를 힘들게 하면 자신도 힘들다. 50년생 자녀와 많은 대화를 갖고 앞날을 이야기하라. 62년생 자라는 자신의 미래에 나 자기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74년생 좋은 사람과 하루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41, 43
39년생 손윗사람의 급전거리는 불쌍하게 봐 줄 수도 있다. 51년생 양보 받고 보다는 먼저 양보하면 길일이 된다. 63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주변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75년생 편안한 하루가 된다. 행운의 숫자: 32, 42
40년생 소중한 물건이 안보일 수도 있으니 단속을 잘해야 한다. 52년생 남과 딸다툼은 절대 피해야 한다. 64년생 시비는 화해로 처리해야 뒤말이 없다. 76년생 저녁외출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39, 40
41년생 중심을 잡으면 가사가 편안하리라. 53년생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손해가 줄어든다. 65년생 외적인 미려함보다는 내적인 것이 마음을 쓰라. 77년생 생각지도 않은 잔치 집에 갈 수도 있다. 결과는 속상하다. 행운의 숫자: 01, 38
42년생 오전은 불행하나 오후는 편안하리라. 54년생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니 성의껏 협조하라. 66년생 분주한 하루로다. 78년생 舊수가 시비로 나타날 수 있으니 뒤를 살펴보고 행하라. 행운의 숫자: 33, 36
43년생 주변 상황변화에 주의하라. 55년생 근처에서는 괴로움이 먼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 67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전진하라. 79년생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손실이 적어진다. 행운의 숫자: 19, 28
44년생 추진하는 일을 한 번 더 점검하라. 56년생 부부간에 의욕하고 다정다감 시간을 내라. 68년생 자녀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라. 80년생 형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 해보라. 행운의 숫자: 05, 20
45년생 음주운전은 절대 금하라. 57년생 친한 사람의 재물을 건드리지 마라. 큰 것을 잃을 것이다. 69년생 출주하고 노래는 하나 마음은 불행하다. 81년생 자기의 위치는 자신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03, 12
46년생 일을 분명하게 처리하고 점검하라. 58년생 피로 주고 말로 받은 활동을 많이 하면 재물이 들어온다. 70년생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 과감하게 진행하며 나가라. 82년생 흐리던 날씨가 개이고 해가 뜨리라. 행운의 숫자: 08, 37
47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마음은 편안하리라. 59년생 먼저 도움을 주면 보답은 그 이상이라. 71년생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다. 83년생 뜻밖의 재물이 올 수 있으니 주변을 부단히 살펴라. 행운의 숫자: 10, 45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제88회 전국체전 남녀 패어부 결승전 <참고도> 백으로 양을 갖추게 되어서는 더 이상 공격이 힘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참가선수단 중에서 공격력이 가장 막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남팀은 흑 55번부터 끝까지 백 대마를 물고 늘어지며 서울팀을 괴롭히고 있다. 57, 59 등을 선수하차 순식간에 백 대마가 한집도 없는 무거운 돌로 변해버렸다. 그런 다음 흑 61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모험을 피하여 후일을 기약한 수로, 정수로 보인다. 이 수로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면 '참고도'의 흑 1 정도인데 이것은 백의 결집에 흑 67로 위에 붙이는 정부터 끝까지 백 대마를 물고 늘어지며 서울팀을 괴롭히고 있다. 백이 64로 두어 한숨을 돌리자 흑은 65로 우변을 차지한다. 백 66의 결집에 흑 67로 위에 붙이는 정석이 매우 적절했다. 우변에 모양을 확대하면서 은근히 왼쪽 백 대마를 노려보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73부터 79까지 매섭게 공격을 퍼부어 낸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최철한·안조영, 바둑왕전 순조 26일 개막한 제27기 KBS바둑왕전에서 최철한 9단·양건 8단·안조영 9단 등이 예선 1회전을 통과했다. 최철한은 이날 서울 한국기원 대회장서 열린 이 대회 예선 1회전에서 맞붙은 권경연 6단을 꺾었고, 양건·안조영도 각각 김영환 6단·최문용 5단을 누르고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KBS 바둑왕전은 제한시간 각 5분에 30초 초읽기 5회의 속기전이며, 우승상금은 2천만원이다. 이번 대회에는 187명이 참가해 자웅을 겨룬다. 오늘 28일까지 예선 2회전을 마무리하고, 내일 1월 7일께 본선 1·2국을 갖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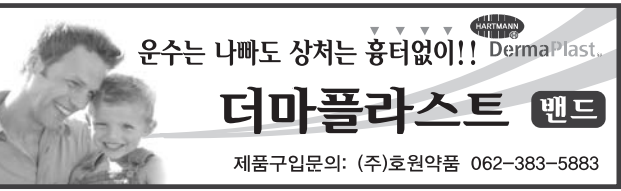


Table with 4 columns: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Each column contains a question and its translation/answer in the respective language. Topics include room numbers, notices, book counts, and lanterns.